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b>차</b>	<b>파</b>
광주 062.524.3511	<b>바</b>	<b>아</b>	전주 063.224.5501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주 064.711.8322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 치유와 나눔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순례길



글 | 이연배(서울YWCA 회장)

“YWCA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요, 새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깊은 감화력을 가져야 합니다... 새 시대의 요청에 응하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한국YWCA 1968년 1월호)

감동과 희망으로 시작한 YWCA 90주년이 어느덧 끝자락에 이른 때, YWCA의 영원한 스승 박에스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봅니다. 9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Y는 과연 살아 움직이는 운동체로 우리 사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을까요.

YWCA가 이 땅에 태어나 90살이 되기까지의 역사는 우리 사회가 겪은 변화의 소용돌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와 해방, 한국 전쟁과 근대화,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새천년을 넘기까지, Y는 언제나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시민사회단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Y의 역할과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Y 활동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창립 90주년은 100년을 향한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90년 동안 토박토박 걸어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회와 Y, 시민과 Y, 사회와 사람 속의 Y를 다시 생각해보며,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세우며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사회와 사람 속에서 Y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분열, 갈등과 차별이 심각합니다. Y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이 커지고 있습니다. Y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생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Y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프고 가난하고 분열된 사회에서 Y가 할 일은 치유와 나눔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치유의 바람이 부는 사회는 폭력에 상처받는 이웃이 없으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생명력 넘치는 사회입니다. 나눔의 바람이 부는 사회는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나눔의 기쁨을 키우는 사회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회는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치유, 나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Y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체로서 사회에 새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감화력을 가지게 됩니다. 치유, 나눔, 변화의 바람은 YWCA가 지난 8월 회원대회에서 100년을 향한 비전으로 선포한 청·춘·여·찬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90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치유와 나눔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YWCA 순례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Cover Story

### 2012 평화의 발걸음

2012년도는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번 한 해도 전국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이 자라 푸르른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기에 희망의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 Contents

2012 Vol.496 12

- 03 90주년 특별기고 ● 치유와 나눔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순례길 | 이연배
- 04 YWCA 역사읽기 ● YWCA 성탄절이야기 | 이종경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① 지나간 90년, 다가올 10년 서울YWCA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 박서영  
● ② 한 눈에 보는 2012 YWCA
- 12 Y-정책 | Y돌봄 연구소 ● 돌봄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회 | 전선영
- 14 | Y돌봄 현장 ●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 이충권
- 16 체현, Y현장 ● ① 다문화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래교실 | 김지혜  
● ②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 조은선 외
- 20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복음과 섬김의 양 날개를 펴고, 송기성 목사
- 22 제5차 YWCA 평화포럼 ● 왜 우리는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 평화나눔팀
- 24 YWCA 생명이야기 ④ ● 후쿠시마에 주님의 평화를! | 이윤숙
- 26 북한을 만나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한 대북지원운동과 2013년도 계획 및 제안 | 이창휘
- 27 연합회 소식
- 28 회원YWCA 소식
- 36 2012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 38 구독자·출판사 감사 인사

## YWCA 성탄절이야기

# 사랑과 평화의 축제

글 | 이종경(전 연합회 사무총장)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인지 자문해 보게 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분이지 선물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이 찬송을 부를 때 마다 연합회 직원 아침기도회를 떠올리며 YWCA에서 보냈던 성탄절을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YWCA 크리스마스 예배와 행사는 YWCA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크리스마스를 알게 된 1940대 당시 이화여전에서는 기숙사 학생들이 해마다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다. 그러나 만주대륙을 거쳐 중국에까지 뻗친 일본의 침략야욕으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추방된 다음해인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미·일 전쟁이 터지자 학교교정에는 찬송가와 우리 가곡 대신 군가가 울려 퍼졌고 총독부

학무국은 공식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일본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게 했다. 성경과 찬송가가 적발되는 마당에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본인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당시 젊은이들은 기숙사 내에 은종이나 금종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붙여 장식해 놓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1946년 Y가 다시 재건되고 박에스터 총무가 미국 Y로부터 파송된 1947년부터 Y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박에스터 선생이 서울에 와서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있었으나 나무에 장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색종이라도 사오게 했지만 전시 중이어서 색종이 파는 데도 없었다. 그때 마침 크리스마스 행사를 사흘 앞두고 미국 캔자스 Y-틴 학생들이 보내온 소포 안에는 한국 Y-틴 회원들에게 보내는 갖가지 선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손수 짜서 보낸 병어리장갑이며 머플러, 색색가지 캔디와 커피, 초콜릿이 있었다. 그것들을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고 외국으로부터 아펜젤러가 받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장식하고 나니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 Y 회원들은 푸른 나무에 각가지 장식품으로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때 처음 보았다. 이 트리를 가운데 두고 이사, 직원, 공민학교 학생 등 130여 명은 여러 나라의 성탄절 풍습을 배우면서 모처럼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

훗날 내가 YWCA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YWCA 성탄예배다. YWCA 성탄예배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내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부여했다. 매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마다 YWCA의 성탄절이 그리워진다. Y의 옛 친구들로부터 받는 카드에서 Y의 성탄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동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 YWCA 성탄예배는 나 혼자만의 추억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YWCA는 준비 과정을 중요시하는 만큼, 성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배분과, 장식분과, 선물분과, 식사분과, 초청분과 등으로 나누어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함께 준비회의를 통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모은다. 지금처럼 성탄 장식이 흔하지 않을 때 박에스터 선생이 성탄 장식에 대한 외국 잡지를 구해 주시어 그 잡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외국에서 오는 카드를 통해 좋은 자료를 얻기도 했다. 어느 해는 국제 친선위원이신 김분다 선생이 인형 머리를 많이 주셔서 천사들을 만들어 예배중심 제단으로 천사들의 합창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오래 오래 기억에 남는 성탄 장식의 한 장면이다.


YWCA는 매해 12월 초만 되면 이미 성탄 장식이 완료되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성탄의 기쁜 소식과 분위기로 가득 차 많은 Y가족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교회보다 먼저 하곤 하였다. 예배 때는 연극 전공 교수인 김갑순 회장께서 연출하여 성경 속에 한 장면을 낭독과 함께 연극으로 보이기도 했고, 유명한 성악가를 모시고 특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행위원들 혹은 실무자들이 특송을 할 때에 더욱 사랑과 정성이 가득하여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워 보였다.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은 YMCA 김천배 총무가 Y는 基氏(기독교 운동체)집안이라 기독교적인 가풍이 느껴져야 한다고 한 말씀이 기억난다. 성탄 선물로 생각차나 유자차도 손수 만들어서 준비하였던 때는 정성의 선물로 감동을

전하기도 하였다. 친을 떠나 빨강 버선 초록 버선에 각종 캔디를 준비하기도 하고 빨강 초록 비닐을 사다 식탁 러너를 만들었던 기억도 난다.

YWCA는 90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행사와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그 중심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YWCA 성탄예배가 있었기에 YWCA 축제가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탄 장식과 선물, 음식이 준비 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보다 우선하거나 중요한 것은 없다. YWCA는 예배를 통해 Y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90년 역사 순례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대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늘 일깨워준 YWCA 선배들이 계셨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YWCA 모든 행사와 축제는 속도보다 방향에 중요성이 있다. 항상 충분한 준비과정과 보다 많은 자원 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방향이 설정되고 토의를 통해 숙성된 완성 작품이 나온다.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랑과 정성이 모아진다. 바쁘게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분이 이태영 선생이다. “YWCA는 행사를 해치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네.” 그 점을 명심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YWCA의 준비성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이요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속성으로 준비하면 표가 나게 마련이다. 시간과 정성을 쏟은 만큼 신뢰가 쌓이고 확신이 생기며 가치가 높아진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YWCA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의 인사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Y 기독교 집안의 전통이며 우리의 귀한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임을 꼭 기억하고 잘 계승했으면 좋겠다. 



▲ 90주년 생일 축하

# 지나간 90년, 다가올 10년 서울YWCA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글 | 박서영(서울YWCA 홍보출판팀 간사)

창립 90주년을 맞아 서울YWCA는 감격과 설렘으로 올 한해를 시작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선다는 서울Y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90년의 역사를 충실하게 읽어내고, 다가올 100년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을 준비했다.

- 1 창립 90주년 심포지엄
- 2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축사
- 3 토크 콘서트 (90년을 만나다)
- 4 서유석 씨의 청개구리 콘서트



▼ 90년 자료집 1,2,3권

특히, 연합회, 광주YWCA와 함께 맞는 90주년이라는 점에서 Y공동체의 축제가 되기 위한 연대의 행사도 진행하였다. 5월의 회원가족 걷기대회에서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 걷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국 Y회원이 함께 모여 90주년을 축하한 8월의 전국회원대회는 뜨거운 감동과 벅찬 희망으로 모두의 마음을 채웠다. 서울Y 창립기념일이 있는 12월에는 사진과 기념품 전시회를 통해 90년을 역사를 눈으로 보고, 90년 자료집 발간을 통해 사회가 담아낸 Y의 모습을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심포지엄, 9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행사, 토크콘서트와 나눔 페스티벌로 풍성한 한 해의 마무리를 맺었다.


90주년 사진 및 기념품 전시회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사진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며 열정과 헌신을 다한 우리 선배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생생한 활동과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회원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기념품에는 Y와 회원들의 추억이 묻어있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주었다.

12월 4일, 1부 순서로 진행된 90년 자료집 발간보고회에서는 <여성과 함께, 시대와 함께>라는 주제로 발간된 90년 자료집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Y 100년사를 집필하는데 주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박영숙 서울YWCA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YWCA의 90년 역사를 평가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서울YWCA의 방향과 비전을 여성, 청년, 회원, 기독교라는 주제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창립 90주년 기념행사는 12월 7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창립 90주년 기념예배로 90년 동안 한결같이 YWCA를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각 세대를 대표하는 회원들이 공동기도문을 낭독해 특별함을 더했다. 이어진 90주년 기념식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인 YWCA의 활동을 격려하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축하 동영상과 Y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동적으로 담은 기념 영상 상영, 100년을 향한 비전 선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90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서울YWCA에서 이사, 위원, 강사,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한 이야기 손님과 함께 추억에 잠기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청개구리 콘서트로 서유석 씨의 통기타 연주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며 90주년 기념행사의 마무리를 지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9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건설한다는 창립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나간 9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을 기대하게 한 서울YWCA 90주년 기념행사는 열정과 헌신을 다한 많은 자원지도자, 회원들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하는 서울YWCA에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Y 이사중창단의 특송



## 한 눈에 보는 2012 YWCA

### 100년을 향한 출발점을 통과하며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해였다. 한국사회에서 한국Y 90주년은 한국 근·현대사와 역사의 궤를 함께 하였기에, 오래된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 온 기쁨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온다. 2012년은 한국YWCA 창립 90주년의 해이자 평화의 해로, 우리 시대정신에, 우리 이웃의 가슴 속에 '평화'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걸음을 이어왔다.

January + February



1.2

◎ 신년예배

◎ 한국YWCA 90주년 기념영화 <사랑을 말하다> 제작



4.20

◎ 제 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식

4.20

April



2.9-10

◎ 2012 YWCA 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축제



3.14

◎ 가사간병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제1차 YWCA 평화포럼  
- YWCA 평화운동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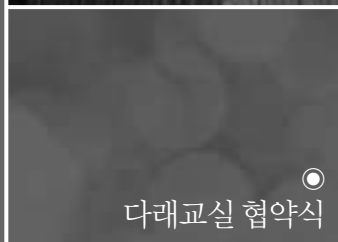
◎ YWCA 복지사업단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콜로키움

5.10



May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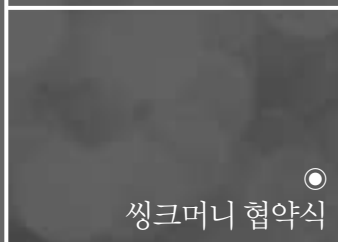


◎ 다래교실 협약식

3.27



YWCA 평화운동  
북한안주지역어린이돕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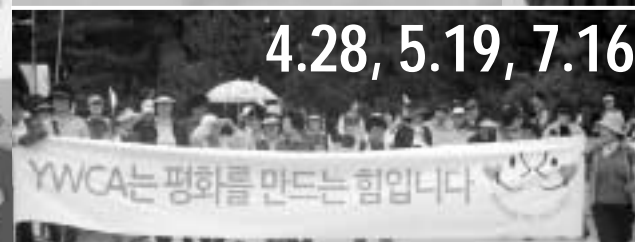
◎ 씽크머니 협약식

3.8



4.28, 5.19, 7.16

◎ YWCA 평화순례 - 광주, 서울, 강릉



제2차 YWCA 평화포럼  
- 청소년의 평화,  
YWCA가 할 일은 무엇인가?

# 2012 YWCA

June



6.4

◎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평화기도회

◎ 경기지역위원회와 함께하는 게릴라홍보전



6.28

◎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협약식



9.20-11.14

◎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제4차 YWCA 평화포럼 - 빈곤, 왜 평화의 문제인가?

◎ 제14차 한·일 Y청소년협의회



September

July



7.20-21

◎ 키다리학교 입학식

제3차 YWCA 평화포럼 -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7.10



10.11

◎ 팜페라테니 임형주 YWCA 홍보대사 위촉

October+November+December

August



8.18

◎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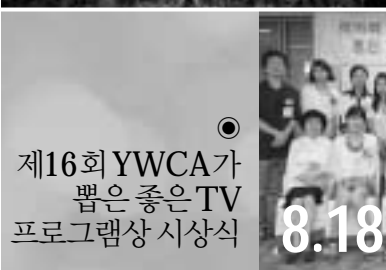
8.17

◎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 전국회원대회

◎ 2012 YWCA ITI 11.8-13



제5차 YWCA 평화포럼 - 왜 우리는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 제16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

8.18



11.27

◎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수기 공모 시상식

◎ 2012 성탄예배



12.6

# 돌봄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회

글 | 전선영(고양YWCA 중점운동팀장)



고양YWCA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돌봄 여성노동자 627명(고양 148명, 안산 188명, 그 외 안양, 수원 218명, 서울 및 기타지역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 설문참여자

직종별로는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재가요양보호사, 병원간병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사도우미가 357명으로 56.9%였으며, 산후도우미가 135명, 베이비시터가 61명, 재가요양보호사와 병원간병인이 각각 8명과 5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 인적 특성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28명, 30대 7명, 40대 176명, 50대 319명, 60대 65명, 70대 1명(무응답 31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였다. 혼인여부의 경우, 기혼이 483명(77%)로 가장 높았고 이혼 7.8%인 49명, 사별 5.1%인 32명이었으며 미혼 15%로 나타났다. 전체 사별 응답자 32명 중 15%에 해당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와 병원간병인의 경우 전체응답자 13명 중 5명이 '사별'로 응답(병원간병인의 경우 5명 중 4명)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579명 중 16.6%에 해당하는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기혼에 비해 생활비 충당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67.3%를 차지한 4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104명(16.6%)이었다. 가구전체월평균소득에 대한 응답으로는 200~300만원 미만으로 체크한 응답자가 전체 32.5%를 차지한 204명, 100~2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수가 117명으로 18.7%에 달했다. 이는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수준인 3인가구 4,248,619원, 4인가구 4,719,368원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 취업 이유

취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종별로는 전체의 40.5%에 해당하는 254명이 '생활비 충당'을 첫번째로 꼽았으며, 두번째 응답으로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산후도우미와 베이비시터의 경우는 '자아실현'을 두번째로 꼽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기혼의 경우 '생활비 충당'과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이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으나 이혼의 경우에는 '생활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부양'을 취업 이유로 꼽았으며 사별의 경우 '가족의 생계부양'이 취업 이유의 1순위로 드러났다.

가구월평균소득에 따른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39.4%가 '가족의 생계부양' 취업이유로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생활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부양'이 순차적으로 높아 가구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돌봄여성노동자의 월급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구월평균이 높은 여성노동자의 경우 '자녀양육과 사교육비 부담'과 '자아실현'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는 67.1%를 차지하는 421명이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은 직종은 산후도우미가 전체 135명 중 85명인 63%가 작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베이비시터의 41%가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도우미와 베이비시터의 경우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숫자상 적기는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와 병원간병인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 월평균 임금

현재 받는 월평균 임금을 묻는 질문에서는 52.6%가 '50-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21.7%를 차지한 '100-150만원 미만'이었다. 이는 주평균 근무시간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3.2%인 208명이 '주 15-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20.7%인 130명이 '30-4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 40시간'이라고 응답한 97명과 '주 4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110명을 합하면 4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비율이 33%에 이른다. 

#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글 | 이충권(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평가위원)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YWCA연합회는 삼성생명이 지정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지난 3년간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 교사역량강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조리실, 화장실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평가의 차원으로 3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과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2/3이상이 도시빈민지역,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의 소유형태는 월세가 약 42%로 가장 많았으며, 한 주간 6일 이상 운영하는 곳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관련한 일반적 특성은, 교사수가 2명인 곳(45%),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는 11~20명(46%), 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130만원(59%)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39%, 기초생활수급권 가정도 24%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은 성적 및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리실과 화장실에 대한 보수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 응답을 얻었

다. 즉, 교사의 경우 화장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점, 조리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동의 경우 조리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점, 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심층 분석하였다. 교사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사업 만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가 느끼는 기관운영의 어려움이 클수록, 교사의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사업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보통 이상인 경우 센터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개선사업만족도와 아동의 심리·정서·사회적 상태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개선사업에 만족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이 환경개선사업에 만족할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 보통 이상의 학업성적인 경우,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역량강화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과 재충전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목표 아래 실시되었다. 사업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심과 재충전의 효과(91%)와 교사들 간의 소통효과성(84%), 교사로서의 정체성효과(79%) 등 지원사업이 이러한 사안들에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는 높은 긍정으로 응답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97%)과 교사들의 욕구반영도(80%)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비율의 긍정응답(60%)은 연수의 단기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원사업의 목표에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95%의 교사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의 교사역량강화사업이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지원사업이 목표로 하는 환경개선과 아동과 교사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사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유지함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지원사업이 이러한 효과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전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아동은 조리실과 화장실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리실, 화장실의 개선만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즐거움과 아동들의 강점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보육, 교육과 관련된 기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시설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교사들이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 또한 나타났다. 낮은 급여수준과 과도한 업무량 등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업무환경 현실에서, 교사에게 가장 일차적으로 치우개선이 시급함과 동시에 심과 재충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 발전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개선 및 사회공동체의 다각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다문화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래교실

정리 | 김지혜(연합회 돌봄과살림팀 간사)

2012년부터 시작된 다래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 고등학교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에게 기초 한국어 지도,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한국어 교육과 독서지도를 통한 어휘력 향상 및 정서적 지지,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래교실 참가 청소년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참가자와 교사의 비율을 5:1로 하는 그룹수업을 시도하여,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경험하게 하고, 공동체 수업을 통해 배려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7개 회원YWCA와 3개의 협력기관(다솜학교, 셋넷학교, 희년 의집)에서 180명의 참가자와 36명의 학습지원교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10개월 동안 80차시(주2회 2시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춰 학교생활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방과 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탐방하고 다양한 문화, 놀이체험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 학습보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논술, 역사, 사회, 체육, 미술, 음악(기타, 오카리나) 등 아이들과 교사들의 흥미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도 지속될 예정인 다래교실은 개별 학습지도를 독서지도와 점목시켜 학생들 개개인의 독서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과목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문화, 역사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학교공부의 기본이 되는 독해와 이해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단순한 학습지원을 넘어서, 향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임을 고려하여 참가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한국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길고도 짧은 다래교실

홍승자 다래교사 | 천안YWCA

8개월 동안의 길고도 짧은 다래교실 수업을 마치면서 처음 아이들을 마주하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이들보다 배로 긴장되어 어색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던 아쉬운 기억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돌발행동들로 이따금씩 난감하게 하기도 했었지만 어느새 정이 들어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웃곤 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과 친해지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수업에 꼬박꼬박 나와 주는 성실한 모습들이 나를 힘나게 했던 것 같다. 공부를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면 집중하기를 어려워하고 거부를 하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재밌게 배우고 쉽게 익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인터넷과 교재를 인용하여 게임을 통한 수업을 하는 방법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었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순간을 보내다 보니 집중력도 생기고 친구들과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 노출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래교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나 또한 이번 경험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발판이 된 것 같아 좋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작은 솔바람이 된 '다래교실' 첫 사역

김기화 다래교사 | 세종YWCA



함께 만나 공부한 지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감사해요. 채현이가 국어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교회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눈술이라 하지만, 그런 건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내 계획에도 없었다. 글을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누며 어휘력을 길러 주고 그냥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발표해보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여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싶었다. 어휘력 부분에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뒤졌지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답은 늘 신선하고 솔직하여 기발하기마저 했던 채현이! 공부는 다 싫다고 하던 채현이가 국어가 재미있어졌다고, 2학기부터는 ‘방과 후 수업’도 신청하겠다고 의욕을 보일 때, 그리고 교회도 나가며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할 때 ‘아, 헛된 일을 한 건 아니었구나!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작은 ‘솔바람’이 되었나? 반문해 보았다. 돌이켜보니 이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물론, 나보다 몇 배나 더 헌신하신 간사님과 Y의 모든 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모여 일구어낸 작은 승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신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수고가 앞찬 결실로 매듭짓는 성탄 선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 오카리나로 모여든 아이들의 마음

신예은 다래교사 | 안양YWCA



아이들을 처음 본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2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서로 농담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학습지원을 공부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학습지원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모아졌다. 그래서 단순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연주해보고 그려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다.

활동들은 주로 미술(공예), 음악활동(오카리나)이었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이어서 참여도 잘 안했던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모습들로 변화되었다.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이나 미술활동들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음악 활동에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 음 하나하나 박자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실수를 자신의 소리로 감춰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음악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혼자서는 소리내기도 어려웠던 아이들이 합주를 하니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소리로 협력을 하고 비로소 연주가 되었다. 오카리나 합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기억 못하더라도 함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준 것 보다 너무 값진 것들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앞으로 약 두 달 간의 남은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고 앞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글 | 김지혜·조은선·진영숙(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참가자)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 이하 금융교육회의)가 지난 12월 5~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금융 역량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 국제 포럼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영리 단체, 금융기관, 정부 기관,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교육기관 등 250여 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올해 금융교육 회의 주제는 '21세기 삶의 기술로서의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 as a 21st Century Life Skill)'으로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인 금융 능력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두었다. 회의는 기조연설과 분과별 패널토론, 전체패널토론, 그리고 특별 강연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청소년 금융교육에 중점을 두어 미취학 청소년, 학교장과의 협력,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둘째날은 성인 대상의 금융 교육 중심으로 농업종사자, 위기 여성 그리고 경영인 등으로 구분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 청소년 금융교육과 온라인

청소년 금융교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관심과 사례발표들이 눈에 띄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PLAYMOOLAH (<http://www.playmoolah.com>)'라는 저축과 용돈관리 게임을 소개하고 직접 게임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게임 이후 실제 저축을 실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미 또한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온라인 게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자녀들의 올바른 저축과 용돈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교육과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도시에만 국한된 경제교육의 기회를 전국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모바일 폰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NGO와 정부,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영향 평가와 전국 커리큘럼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사례 발표 중 가장 눈의 띄었던 프로그램은 아시아 프루덴셜의 'CHA CHING(<http://www.cha-ching.com>)'이라는 멀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CN(Cartoon Network)과 협력하여 캐릭터와 노래를 개발하였고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금융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온라인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카툰 뿐만 아니라 금융게임, 학부모를 위한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이 내년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BNVS(BN Vocational School)는 청소년 직업 학교로서 2005년에 베이징에 설립되어 중국 8개 도시에 8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민노동자들 중 70%는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여 돈을 벌거나 일을 구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학교에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금융가치관을 기반으로 돈을 모으는 것과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8천명(2011년 기준)에 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

는 이때에, 금융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학습 및 직업 체험·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금융교육

케난아시아연구소(Kenan Institute Asia)에서는 예산과 저축 생활을 통해 금융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직업여성, 빈민여성, 유흥업계 종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프로그램 지원 전·후의 결과 측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교육이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교육 이전과 교육 후 1년 동안의 행동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직업여성 중 저축을 하는 경우는 30%에서 90%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40%에서 87%로 증가하였다. 빈민 여성과 유흥업계 종사 여성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었으며 유흥 업계 종사 여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비습관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금융교육은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 효과가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없이 재정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는 소비와 저축을 유도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적인 시스템으로 참가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1대1의 트레이닝으로 먼저 교육 받은 사람이 멘토역할로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커플 트레이닝과 각자의 재정적 상황과 소비습관, 목적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던 점이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하여 그 실태와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통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지원 방법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가해자와 주변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개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 내 경제적 폭력"이 인권침해의 일부분으로서,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얘기했다. YWCA는 여성폭력 추방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및 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로 치부되는 여성이 그들을 깨고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그들의 금융 자립도를 높이고, 금융 리더십도 함께 성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YWCA는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2006년부터 청소년금융교육 프로그램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를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 수준과 학교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재와 교구를 자체 개발하였고 금융교육 분야의 보완과 공교육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씽크머니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현재까지 씽크머니 교육을 받은 학생은 총 29만여 명이고 약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금융 강사를 배출하였다. (2012년 11월 기준, 누적수)

금융교육분야의 보완과 공교육화를 위한 한국YWCA의 노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아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금융교육회의에서 주요 패널로 소개되어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교육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YWCA 참가자는 씽크머니 부스를 운영하여 타국가 대표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씽크머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영어로 된 교재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교재를 원하는 참가자들도 많고 국가간의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 지 논의를 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단순히 타국가의 금융교육 정보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금융 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끊임 없이 고민하며 내년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실생활에서 금융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 복음과 섬김의 양 날개를 펴고

##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

정리 | 편집실

올 한해 한국YWCA 평안남도 안주의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에 회원 Y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교회들의 참여와 협력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 역사 자체라 할 수 있는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 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필요성, 그리고 지속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반갑습니다. 먼저 정동제일교회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 제물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에 사저를 마련하고 선교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동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동제일교회 1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등의 모든 사역에 '섬김'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정동교회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구제와 선교로 사용될 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더불어 이웃을 섬기는 사회 참여, 봉사가 균형을 이룬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정동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국YWCA 평화운동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자발적 참

여가 많다는 것은 평소 정동교회의 교회 철학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교회의 추구하는 선교전략과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데에는,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구원과 사회봉사라는 두 가지 선교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복음화와 동시에 민족과 사회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즉, '선포'와 '봉사'는 예수님 사역의 두 날개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실천하셨고 정동교회가 지난 127년간 실천해온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복음화'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인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는 곧 이 땅에서 '인간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이 민족을 품고 이웃들을 사랑으

로 섬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Q** YWCA는 교회와 협력하여 북한어린이 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 자신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유라는 물질을 보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고 섬김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YWCA가 북한 어린이를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시민사회와 동역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교회는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YWCA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동에 협력할 것입니다. YWCA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함으로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더 큰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하면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한국사회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에너지를 대사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만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장이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비만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개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이웃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양 날개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나,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년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참여 명단

총 모금액 : 79,881,559원(\*2012년 12월 31일 기준)

#### 기관 및 단체

- 성광교회 8,210,000
- 정동제일교회 6,816,000
- 이효재(경신사회복지연구소) 5,000,000
- 돌샘유치원 2,852,420
- 희망모금봉사단 1,357,090
- 나미비아YWCA 미화100달러
- 대양교회, 마포지방여성교회, 서초신동교회, 송현제일교회, 씨티은행, 예수비전교회, 우이제일교회유년부, 진주영생교회
- YWCA 인터넷방송국 3·4기 아나운서

#### 회원Y

- 광주YWCA 12,000,000 외 51개 회원YWCA
- 가락Y어린이집, 광주Y어린이집
- 동해 보건소, 순천인력개발센터 바리스타팀
- 1단계실무자교육수강생, 90주년회원대회모금 연합회직원고난주간모금, 연합회 성탄예배헌금
- Y-틴 전국협의회

#### 개인

- 광상준, 김기동, 김윤환,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김 형, 나이남, 남희숙, 명수금, 명진숙, 문광선, 문미란, 민은심, 박미선, 박진화, 배정미, 성기웅, 손은하, 송록희, 오경혜,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유숙희, 이남희, 이명혜, 이재철, 이종임, 이주영(위원), 이주영, 이행자, 임진영, 장승희,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진인식, 채혜원, 최수산나, 최숙자, 최원진, 최윤영, 최현자, 최혜실, 하은경, 한미미, 한영수, 황정아, 해피빈 후원자

### 2012년 북한 수해돕기 참여 명단

총 모금액 : 9,919,520원(\*2012년 12월 31일 기준)

#### 개인

- 원영희, 김 형, 한미미

#### 회원Y

- 서귀포, 강릉, 목포, 청주, 서울, 마산, 광주, 인천, 부산, 고양, 순천, 포항, 수원, 제주, 통영 Y 총 14개 회원YWCA 참여

# 왜 우리는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정리 | 평화나눔팀

제5차 평화포럼이 11월 29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15여 개 회원 Y 평화포럼 대표단과 연합회 실행위원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왜 우리는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배현주 교수(부산장신대학교)의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이후 지역별 토론을 통해 2012년 평화포럼의 정리와 평화운동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은 신혜은 연합회 실행위원(연합회 부회장·평화나눔팀 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배현주 교수는 신학적·여성운동적·에큐메니칼적 관점에서 생명평화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한 시간동안 발제하였다. 배현주 교수는 부산장신대학교 성서학과 교수이자 부산YMCA이사이며, 현재 YMCA 전국연맹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아와 영양실조, 빈부격차, 인간내면의 도덕적 황폐와 극단적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인간관계는 해체되고,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으며, 지구는 생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YWCA는 여성리더십을 통한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21세기 화두는 생명과 평화이다. 신약성서의 생명평화사상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정치 경제의 비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하나님 나라는 제국의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정치권력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영역이 아닌, 섬김과 사랑의 힘이 대안적 정치와 문화의 동력이 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영성적 근거는 압제와 무력에 기초한 ‘팍스 로마나’의 지배 질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토대가 된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유로운 대안경제, 곧 생명경제를 실현하는 나라이다. 예수는 재산 재분배 같은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질적으로 다른 경제생활의 패러다임을 지닌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불균형한 경제체제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한다. 사회의 불의를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해체시키며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두를 비인간화한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 손으로 보내

는” 하나님 나라이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생명의 경제를 느낄 수 있다. 결국 신약성서가 말하는 생명과 평화는 영성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극복하는 대안적 세계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YWCA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생명평화운동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탈핵운동이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이다.

작년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외국에 핵발전소 수출을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오만의 극치이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과 동북아시아의 핵발전으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핵 에너지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대중의 인식에 힘입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핵 발전소는 원료인 우라늄의 채굴, 가공, 농축과정, 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핵폐기물 처리와 발전소 폐쇄 과정에 막대한 화석연료가 소모되고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깨끗한 청정에너지라 할 수 없다. 또한 핵 에너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라늄의 분포는 국가별 편중이 심한데, 전체 우라늄의 93.5%가 13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라늄 수급의 불안정성, 가격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 더구나, 값싸고 경제적인 에너지는 아니다. 핵 발전소 자체 운전 비용은 석탄, 천연가스에 비해 아직까지 저렴할지 모르나,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


외한 건설비용만을 보더라도 다른 재생 에너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 대규모 시설이기에 민간 투자만으론 불가능하며, 정부의 보조가 필수이고, 발전소 폐쇄와 폐기물 처리에는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이 든다. 마지막으로 핵 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핵발전소 사고의 공포와 악몽을 목도했다. 직접 피폭이 아니고 아무리 저농도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대기와 토양, 수질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호흡과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내부 피폭’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핵발전소 산업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먼저 가해자로서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교만과 탐욕, 무관심과 무감각의 죄를 회개하고 겸허히 애통하고 탄식하는 영성을 통해 탈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기에 한국Y가 계획하는 전기 1% 절약운동, 1시간 촛불 켜기 운동, 제주 서귀포 풍력발전소 및 태양열 건물 등은, 탈핵 슬로건을 외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핵에 의존하지 않는 구체적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 제안 영역인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은 다소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얼마 전 이스라엘 가자 침공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등 돌리고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은 갈가리 찢겨 있었으며,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기독교 시오니즘과 일차원적인 유대인 전도에 경도되어서, 팔레스타인 기독교들이 아랍 형제자매들과 함께 겪고 있는 영토 문제, 물 분쟁, 인권 유린 등 심각한 폭력의 문제를 중요한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분리장벽으로 갈라진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2009년 12월,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를 발표하고 WCC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한국 YMCA 연맹이 이를 번역하고 팔레스타인 청년을 초청하여 순회 강연한 것을 계기로 기독교계 내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29일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로 YWCA, YMCA, NCC 등 기독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평화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가자 지구에서 고통 받는 여성 및 아이들을 위한 모금 및 대안적 성지순례가 계획되고 있다.

서구 기독교는 2차 대전 유대인 학살 이후, 반유대주의 유산을 청산하려 노력해왔다. 이 와중에 서구기독교의 유대인들에 대한 죄책감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

타인을 탄압하고 축출하는 비극을 낳았다. 기독교 시오니즘은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와 이스라엘 국가를 성립한 것을 성서적 예언의 성취라 여긴다.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은 성서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후자의 정치적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한국기독교도 어느새 기독교 시오니즘이 스며들어 이스라엘의 폭력을 옹호, 묵인하는 형국이다.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을 위해서는 우선 서구기독교에 대중적으로 팽배해있는 오류와 편견에 물들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인류는 생명과 평화의 문명을 창출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기로에 서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체를 상생과 공존을 위한 상호관계적 주체가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하는 관계 양식은 가부장주의에서부터 기인한다. 아버지 중심적 가부장시대에서 벗어나 만물중심, 생태 여성주의적 탈가부장시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여성지도력이다. 아파 신음하는 지구를 품어 나아갈 여성, 그리스도인적 가치 실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리스도인, 무엇보다도 YWCA의 여성지도자들이 생명평화운동을 통해 펼쳐져야만 할 때이다. 

**제5차 평화포럼 지역별 토론 정리**

평화·세계주의정

**대구Y, 대전Y, 세종Y, 청주Y**

- 페미니즘적 시각의 성서연구 제안
- 교회 내 소통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전도연합회와 연계

2013년 계획 .....

- 평화 걷기대회, 생명평화음악회, 캄보디아 평화기행(초은씨 연결)
- 탈핵학교 및 지속적 운동 전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기독교 교육지도자 간담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 바로알기 인식개선 사업 실시

부다 서다 지역

**속초Y, 서울Y, 순천Y, 광주Y**

- YWCA 생명평화운동은 ‘숨겨진 위험’을 알리는 운동 제안
-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운동 전개

2013년 계획 .....

- 탈핵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 대상 생명평화학교
- 청소년 탈핵녹색소비자교육, 탈핵 캠페인
- 지역 기독교여성연대를 연계한 탈핵 및 돌봄운동
- Y틴 탈핵 교육과 활동, 생명평화 캠페인 등

연합회

**연합회**

- YWCA 운동의 2013 WCC 총회 의제화와 회원Y 관심 유도



# 후쿠시마에 주님의 평화를!

글 | 이윤숙(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후쿠시마가 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대지가, 후쿠시마의 하늘이 울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 아이들의 생명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출구도 없는 어둠 속에 헤매는 후쿠시마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그건 다른 아닌 아이들, 아이들의 생명입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생명이 바로 후쿠시마의 빛입니다.……여러분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 주세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 아이즈와카마츠시에서 열린 ‘핵에 관한 국제종인 회의’. 둘째 날 사례보고를 하던 일본의 승려 사사키 미치노리 씨의 눈물어린 호소에 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의 조용한 흐느낌으로 숙연해졌다. 회의에 참가한 나도 그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특히 코피를 쏟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저 무력하게 닦아주어야 했던 아버지들, 갑상선 포낭이 찌른 아이의 에코사진이 얼룩덜룩해질 때까지 울고 또 울어야 했던 후쿠시마 어머니들의 뼈아픈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후쿠시마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렇지만 점점 그 충격과 공포감은 어느새 잊혀져가고, 후쿠시마에 관한 소식도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쓰나미가 집이며 자동차며 눈발과 가축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앗아간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은 상실의 고통을 제대로 삭히지도 못한 채 매일 무시무시한 방사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방사능의 공포가 조금씩 후쿠시마 아이들의 몸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때, 부모들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한다. 아이들을 바깥에서 뛰놀지 못하게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건만 학교에

서 돌아온 아이들이 이유 없이 코피를 쏟아낸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 다른 가족을 남기고 피난 온 엄마는 하얗게 멍을 이 보이는 아이의 갑상선 에코사진을 붙들고 통곡한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과민반응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들 또한 밤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후쿠시마와 이 근처에 사는 수많은 일본 어린이들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진찰을 받은 후쿠시마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갑상선 포낭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에서 파견한 의사들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일관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연회를 열고 ‘괜찮으니까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도 좋다. 웃는 얼굴은 방사능도 이긴다’ 라는 식의 선전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부 파견 의사들은 갑상선 이상증세의 원인이 후쿠시마 주민들이 평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해산물들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시종일관 감추기와 속이기, 안심시키기, 거짓 선전이다. 실제로 일본 문부성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후 얼마 안 있어 어린이 피폭량 한도 기준을 1밀리시벨트에서 20밀리시벨트로 무려 20배나 상향조정해 버렸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문부과학성을 에워싸고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살피야



하는 일본 문부성이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준치를 높여 후쿠시마 아이들이 방사능에 안전함을 선전하려 한 것이라니,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10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아이즈와카마츠시에서는 방사능 수치를 매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포스터가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실제 같은 곳에서 다른 기계로 측정했을 때보다 항상 낮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인데, 이는 낮게 나오도록 주변의 풀밭을 정리하거나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리스크 어드바이저는 항상 ‘정부가 안전하다고 정했으니 국민은 그것에 따르라’ 고 선전하며 ‘아직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한다’ 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식품방사능측정기로 먹을거리를 감시하며 정부 파견 의사가 아닌 소아과 의사에게서 아이들을 건강상담을 하는 적극적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이즈 방사능 정보센터-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인 카타오카 테루미씨는 “피폭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던 후쿠시마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확실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대지진과 핵발전소의 사고 피해는 노다총리의 발표대로 ‘수습’ 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그 형태는 더 깊고 다양하고 장기적이다.

2012년 지금 후쿠시마 거리를 표현하는 말은 ‘분단’ 과 ‘불

안’ 그리고 ‘마비’ 라고 한다.

피난을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보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아내와 정부발표를 신뢰하자고 하는 남편이 서로를 원망하며 싸운다. 피폭을 무릅쓰고 노동해야 하는 사람과 돈이 많아 휴양을 가는 사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노인 세대와 앞길이 창창하나 절망한 젊은 세대들이 갈등하고 반목한다. 어디는 이런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냐 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다.

후쿠시마 사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세대와 공동체를 사납게 활귀고 분단시키는 또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이 기형아를 두려워해 중절을 하고, 자신이 피폭자라 알려질까 봐 불안에 떠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자신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스스로도 불안에 익숙해져 이제 웬만한 고통에는 둔감해지는 ‘마비상태’ 에 이르고 있지 않냐는 자각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자 중 오키나와에서 온 카나이 목사는, 군사지지와 후쿠시마핵발전소는 첫째 사회적 약자들의 공포, 불안, 슬픔 위에 존재한다는 점과, 둘째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게 가공할 만하다는 점, 셋째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이 이 죽음의 세력에 어떻게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지 서로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추운 이 겨울, 상실과 분단의 상처에 신음하는 후쿠시마의 대지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가슴 뜨겁게 기도하며, 이 땅 한반도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한

# 대북지원운동과 2013년도 계획 및 제안

글 | 이창휘(NCKK 화해통일국 간사)

민족의 최대의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녘에 있는 동포와 함께 힘을 합쳐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등으로 인한 '5.24조치' 인해 남북의 관계는 악화된 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굶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인 상황과 관련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2011년 5월과 11월, 2012년 3월과 9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인도적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을 제외한 세 번의 경우에는 중국 애덕기금회의 도움을 받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밀가루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제3의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적지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분배투명성을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도적지원에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분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간 단체에게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적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인도적지원과 협력사업을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바람직한 자세이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서로 단절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통일이 점점 앞당겨졌으면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봉수교회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회를 개최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려고 합니다. 남과 북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통해서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로 되어지는 일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 연합회 소식

### 2012년 연합회 성탄예배



연합회는 12월 6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2012 성탄예배-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YWCA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철 백주년기념교회 목사가 '예수주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평화와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2013년에도 온 누리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였다.

### 제5차 평화포럼

제5차 YWCA 평화포럼이 11월 29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 P.22~)

### 2012 YWCA 은학의집 성탄예배

2012 YWCA 은학의집 성탄예배가 12월 18일 은학회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지역 은학의집운영위원장의 인도, 만나회 엄태호 목사의 말씀선포, 만나교회 주향기 총창단의 특송이 있었으며 헌금은 저소득 어르신과 북한어린이 부유보내기에 쓰여졌다.

### 세계YWCA 훈련프로그램 III 참가보고회

연합회는 11월 29일 III 참가보고회를 열었다. 원영희 세계Y이사의 인사, 백혜진 실행위원의 전체활동보고, 참가자인 고은주 대구Y 위원, 김지혜, 최지혜 연합회 간사, 박혜리 서울Y 간사의 발표가 있었다.

###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사업 보고

YWCA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의 활동보고회가 12월 6일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도스뜨' 들은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도의 구와히타와 벵갈로르 도시빈민지역과 마을



에서 펼친 활동 소감을 나누었다.

### 2012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12월 7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2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 보고회를 하였다. 배정미 부장(연합회 돌봄과살림팀)이 사업결과보고를 하였으며 윤홍식 교수(인하대)의 '방과후 정책 돌봄정책 대안', 이종권 박사(연세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체 평가보고서'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환경원 위원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동식 사무총장(구미YMCA), 정유진 센터장(동소문지역아동센터)의 토론이 있었다. 생명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하였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3차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한국Y는 생크머니 부스를 운영하여 YWCA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 P. 18~)

### 생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



2012년 청소년금융교실 생크머니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이 12월 13일 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 ▶ 2012년 수상자

**우수 YWCA** 안산YWCA 청소년 문화의집, 충주YWCA

**우수 협력학교** 청담중학교(서울), 봉일천초등학교(파주)

**우수 동아리** 안산YWCA 청소년 문화의집, 충주YWCA

**우수 강사** 권나현(성남YWCA), 송안수(여수YWCA), 강시내(한국씨티은행동아솔레시티지점)

### YWCA 인터넷방송국 5기 아나운서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연합회는 YWCA 인터넷방송국 YWBS 5기 아나운서 다섯 명을 선발하였다. 11월 23일 2차 면접을 통해 아나운서를 선발하였으며 12월 14일 주보경 YWBS PD와 아나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5기 방송은 2013년 1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아프리카TV를 통해 볼 수 있다. (www.afreeca.com/ywca1)

### 회계프로그램 교육

회원Y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회계전산시스템교육이 영등포여성인력센터에서 11월 27일, 28일 진행되었다. 회계전산시스템은 회원Y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처리, 회계담당자의 업무경감, 표준화된 회계관리가 기대된다.

### 성인지 예산 정책연구 및 지역사례발표

연합회는 12월 1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성인지 예산 정책연구 모임을 가졌다. 이날 안산Y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운동 목적과 사례 발표를, 안양Y에서는 예산 관련 재정부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정**  
• 최형선 성균관대 초빙교수 임용(2012.12.)

### 제17회 소비자의 날 소비자유공자 포상

• 포상 | 황기숙 의정부Y 사무총장  
• 대통령표창 | 정용희 서울Y 전 차장  
• 공정거래위원장상 | 문영순 서울Y 모니터 활동가, 정현자 여수Y 강사, 이경미 울산Y 이사

**보고**  
• 한국YWCA 90주년 코디네이터로 애써주신 고상준 에듀플랜 대표가 12월 20일 심장마비로 소천하였다.

## ● 북부

###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 강릉Y 평화교육

강릉Y는 12월 17일 강일여고 1학년 350명 학생들과 평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평화교육에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었고 북한여성들에게 보낼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모금도 함께 실시하였다.

#### ● 성탄예배

강릉Y는 12월 18일 성탄예배를 드렸다. 자원지도자, 강일여고 Y-틴 클럽, 다문화가정 어린이, 실무자들과 함께 성탄예배로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Y-틴 클럽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연주가 있었으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 제9기 동해여성대학 - 여성친화도시 견학

동해Y 제9기 동해여성대학 '여성친화도시 시민전문가 양성과정'은 11월 2일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시흥시를 견학하였다. 일자리센터에 들러 여성친화도시 브리핑을 받으며 여성친화도시만들기에 관한 구체적 과제들과 관련활동들을 알아보았고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자발적 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매화도서관을 견학하였다.



###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 90주년 자료집 발간보고회 및 심포지엄, 전시회

서울Y는 창립 90주년을 맞아 자료집 발간보고회 및 심포지엄, 사진 및 기념품 전시회를 통해 90년의 감격과 추억을 나누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였다. 90주년 사진 및 기념품 전시회는 12월 3일부터 7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90년 심포지엄은 12월 4일(화)에 90년 자료집 발간보고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 인천 YWCA 이한나 간사

#### ● 2012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

인천Y는 12월 13일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 해 동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시민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진행하고, 판매금액의 1/10을 기부금으로 모았다. 700여만 원이 모아져 이날 전달식에서 한부모가정, 난치병어린이,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독거노인 등 12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 ● 춘천YWCA·춘천YMCA 공동기도회

춘천YWCA와 춘천YMCA는 11월 27일 YMCA 본관에서 "끊이지 않는 폭력(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변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공동기도회를 가졌다. 유영호 목사의 말씀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8일 동안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모금을 하였다. 전 세계에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기대한다.

#### ● 직업개발부 송년의 밤

춘천Y 직업개발부는 12월 20일 송년의 밤을 열었다.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년예배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장기자랑, 식사시간이 있었다. 또한 춘천Y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 회원 7명에게 개근상도 수여하였다.

## ● 경기

###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 ● 201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부천Y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201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을 하였다. 특히 부천Y 소비자모니터 회원들은 성평등 모니터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시민방청단은 부천시 살림을 들여다보고,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



###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 제14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여행

성남Y는 11월 2일 총성교회에서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여행을 진행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사물놀이 공연으로 성남시 중·고등학교와 7개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180명의 재능기부로 꾸며졌다. 이번 음악회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 평화음악회였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Y가 계속해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 다문화가족 멘토-멘티 한마당

수원Y는 12월 1일 다문화가족 멘토-멘티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멘토-멘티 결연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결과 보고, 소감문 낭독, 설문평가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여정을 마친 멘토와 멘티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발표했고, 멘티의 남편들은 부부간의 소통을 도와준 점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했다.



## 안양 YWCA 최정근 팀장

### ● 제16회 안양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

안양Y는 12월 4일 저녁 7시 30분 평촌아트홀에서 탈북여성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특별출연으로 안양YWCA이사중창단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했으며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따뜻한 정기연주회가 되었다.

### ● 이웃사랑나눔



안양Y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탈북여성 가족과 소외계층여성가장 가족을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쌀, 라면 등을 나눠드리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생필품 일부는 안양감리교회, 라면은 (주)농심 안양공장에서 후원하였다.

## 의정부 YWCA 김은영 간사

### ● 의정부 돌보미 송년 잔치

의정부Y는 12월 17일 살림돌보미와 산모돌보미, 아기돌보미 회원들과 함께 송년 잔치를 가졌다. 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과 더불어 보람되었던 일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 2013년도도 YWCA의 얼굴로 돌봄과 살림이 필요한 곳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의정부Y 돌보미가 되길 기대한다.

## ● 중부

##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 20주년 비전워크숍

논산Y는 12월 11일 실무자, 자원지도자, 이사, 위원과 함께 연합회 운동국 박은실 국장의 진행으로 논산Y 20주년 비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YWCA운동의 활동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 20년 후 YWCA모습을 상상해보며 Y안에서의 비전과 각자의 비전을 꿈꾸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논산Y의 비전은 기도와 영성이 살아 숨쉬는 YWCA, 섬김과 나눔으로 생명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YWCA, 청소년,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YWCA, 다양한 회원활동을 지원하는 회관건립이다.

##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대전Y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성(性)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기 책임성 및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성범죄자가 성범죄의 반인권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 2012 성탄예배

천안Y는 12월 18일 평생회원들과 함께 2012년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날 재능나눔사업으로 통기타를 배운 노숙인들이 참석하여 통기타 연주를 하였다.

## 청주 YWCA 권진숙 간사

### ● 제1회 아빠수기 공모전, '살림꾼 파파를 찾습니다!' 시상식



청주Y는 12월 14일 제1회 아빠수기 공모전 '살림꾼 파파를 찾습니다!'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 '파파(father)의 살림?육아 노하우를 공유하자'라는 내용으로, 아빠수기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기 16편, 동영상 1편, PPT 2편으로 총 19편의 공모작품이 접수되었다. 대상은 '요리하는 아빠, 책 읽는 엄마'의 김영운님이 선정되었고, 최우수 2편, 우수 2편으로 총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 ● 회원열린강좌 여성영화아카데미 종강

청주Y 회원열린강좌 여성영화아카데미가 12월 13일 종강하였다. 지난 9월 21일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강한 '여성영화아카데미' 총 6회로 진행하였고 '홀어진 꽃잎(1919)'을 시작으로 '이중배상(1944)', '4인용 식탁(2003)' 등의 영화를 감상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 비추어진 다양한 여성의 삶의 양상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 점검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 돌봄회원 연합송년모임

충주Y는 12월 11일 충주Y 돌봄회원(살림, 산모, 건강, 요양)을 위한 '100세 시대 건강관리'라는 주제의 보수교육을 갖고 송년모임을 하였다. 활동사례를 나누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행복가족세우기

충주Y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행위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여성주의, 인지·행동 개입을 통해 성평등 의식과 긍정적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상담과 15회기의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가족세우기 2차는 충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 ● 서부

## 광양 YWCA 정정숙

### ● 2012 성탄예배

광양Y는 12월 21일 2012 성탄예배를 드렸다. 회원, 자원봉사자, 이사 및 직원 80여 명이 모여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광양Y는 12월 14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하였다.

## 광주 YWCA 김해정 간사

### ● 생명평화포럼 및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기독교시민연대 결성식



광주Y는 12월 11일 생명평화포럼 및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기독교시민연대 결성식 가졌다. '핵은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라는 주제의 영상상영, 이상옥 이사장(광주YMCA)의 기도, 최양남 회장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여,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진' 양재성 목사의 강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기독교시민연대 결성식과 대선후보 탈핵 공약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 ● 성탄 축하예배 및 한국Y 90주년기념제작 영화상영

광주Y는 12월 13일 '성탄축하예배 및 한국Y 90주년기념제작 영화상영'을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하였다. 성탄축하예배에 이어서 Y문화센터 교육생들의 공연, 전통무용중급반의 한춤, 영어반의 합창이 있었다. 또한 한국Y 창립 90주년 기념 영화 '사랑을 말하다' 영화상영 및 전화성 감독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 2012년 성탄예배



남원Y는 12월 17일 2012 성탄예배를 드렸다. 시낭송과 직원들의 성탄 특송, 결혼이민여성들의 캐롤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을 위한 봉헌 시간을 가졌다. 각자 준비한 선물과 다과를 나누며 새해를 계획하는 교제의 시간이었다.

### ● 2012 회원송년의 밤

순천Y는 12월 13일 '2012 회원송년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사옥 회장 등 회원 200명이 참석하였다. 해피락에서 준비한 만찬, 송년예배, 회원발표 및 친교시간을 가졌다. Y합창단 공연, 멋쟁이Y인형극단의 수어공연, 인력개발센터 바이올린 수강생연주,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캐롤메들리, 건강돌보미회원들의 품바공연 등의 발표회가 있었다. 회원 송년의 밤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201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 제13회 여수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



여수Y는 12월 4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바리톤 박경준과 YWCA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하였다. 여수YWCA합창단은 1999년 창단하여 140여 회가 넘는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지역 음악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문화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평가 A등급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평가결과 A등급으로, 전국 90개 센터중 상위10% 이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과 출산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하기 위해 2009년 3월 2일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개소하였다.

### ● 생명살림 체험 한마당



전주Y는 12월 13일 '생명살림 체험 한마당'을 진행하여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완주군 일대 농가를 방문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주Y는 12월 1일 완주로컬푸드와 MOU 체결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이용하여 농가를 살리고 바른 먹거리를 확산하는 생명살림 운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 ● 사회복지법인 YWCA양지회 장학금 전달식



사회복지법인 양지회는 12월 20일 '2012년 YWCA양지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장학사업은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올해는 총 10 명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1,0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 ● 동부

## 거제 YWCA 김의향 팀장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구촌다문화이동도서관' 개관



거제Y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구촌다문화이동도서관 개관식이 11월 30일에 있었다. 지구촌다문화이동도서관은 지리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도서를 받아들 수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 다문화 여성 및 자녀들의 한글교육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지구촌다문화이동도서관은 삼성중공업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개관됐다. 거제Y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년간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거제시로부터 재위탁 결정이 되었다.

##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 ● 제8회 지역사랑음악회

김해Y는 12월 13일 경남이주민문화센터 라함에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생명사랑 & 지역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아름다운 연주와 성악·합창·댄스 등으로 구성되어 이주민여성과 자녀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였다.

### ● 김해시 지원 유망직종설명회 및 소자본창업 특강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 지원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특강을 실시하였다. 당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온라인마켓터 수료생들의 창업가게 물품판매와 천연비누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창업 특강은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최신의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 성탄축하예배

대구Y는 12월 18일 회원들이 함께 모여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위원회별 성탄발표회도 함께 진행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또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관기관에 성탄트리를 전달하며,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 북한바로알기 교육



대구Y는 12월 6일 북한 여행을 떠낸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초대하여 북한의 실정을 알아가는 '북한바로알기' 시간을 가졌다. 신은미씨를 통해 북한의 실정을 알고, 북한어린이돕기와 새터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Y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 ● 성평등 캠퍼스 '공평한 시선' 캠페인



마산Y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경남대학교 일대에서 양성평등 캠퍼스 '공평한 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학Y 동아리(터울거리) 회원이 1년 동안 양성교육 8회기를 받고 체험부스를 직접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작품전시와, 양성평등 나무 손도장 찍기, 성인지력척도 설문조사와 양성평등 십계명 만들기(한지공예), 양성평등은 OO이다 등의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 희망의 페스티벌

사천Y꿈샘지역아동센터는 사천지역아동센터와 연합하여 11월 17일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희망의 페스티벌'을 열었다. 그동안 배운 태권도와 댄스 등 부모님들 앞에서 솜씨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회를 통하여 가족간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안동 YWCA 김주영 간사

### ● 실버대학 회원 봉사활동



안동Y 실버대학 요요클럽은 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요요클럽 회원들은 연중 요양원과 복지시설을 다니면서 공연과 레크레이션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의 모습을 보임으로 동연배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모범이 되고 있다.

### ● 사랑나누기

안동Y는 12월 1일 사랑의 김치 나누기, 12월 14일 라면 나누기를 하였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정을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울산 YWCA 이민정 간사

### ● 소비자의 날 캠페인

울산Y는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울산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임을 홍보하였고 시민들에게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에 대한 스티커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거리캠페인 후 경남은행에서 '찾아가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 다문화가정 김장잔치

진주Y 다문화교육부는 12월 12일 '함께 김장하며 웃는 다문화'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김장잔치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와 GSE 도시가스 후원으로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되었으며 김장 행사 외에도 다문화소통한마당, 다문화작은도서관에 작은 장난감 도서관 개소를 축하하는 공연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일정까지 모든 참가자가 함께 하는 나눔이 이어졌다.

##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 사랑의 김장 나누기



포항Y는 12월 6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800여 포기를 전달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포스코 및 포항 롯데백화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 2012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월 | 제목 | 필자

## ● 90주년특별기고 - YWCA 100년 비전을 세우다

1+2월	북한 다섯 곳에 YWCA가 재건되는 꿈을 꾸며	차경애 연합회 회장
3월	새벽날개를 펴고	김형 연합회 부회장
4월	지금까지, 지금부터	강교자 연합회 직전회장
5월	순례의 길, 비움의 길	신희은 연합회 부회장
6월	일상의 가치를 이루는 Y운동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7+8월	한국YWCA 한 세기를 향하여	정희경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9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Y운동체	유금중 연합회 후원회 이사
10월	시니어 회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망하며	임국미 연합회 복지사업단 이사
11월	정의·평화·생명 사회를 향하여	최양남 광주YWCA 회장
12월	차유와 나눔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순례길	이연배 서울YWCA 회장

## ● YWCA역사읽기

1+2월	한국YWCA 90년, 우리 모두가 역사이고 주인입니다	편집실
3월	한국YWCA 설립이야기	박용욱
4월	기독교와 YWCA	최만자
5월	YWCA 회관이야기	김현자
6월	YWCA 대회이야기	황해숙
7+8월	YWCA 지역조직 확장 그리고 에피소드	이진용
9월	YWCA 문화이야기	이요식
10월	-	
11월	대학Y 이야기	정유진
12월	YWCA 성탄절 이야기	이종경

## ● 90주년기념행사소식 - YWCA90주년 지금 이 순간

1+2월	‘열정공유하기’ 2012 YWCA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축제	편집실
3월	YWCA 100주년을 향한 10년의 행진	고상준
4월	YWCA 90주년 SPECIAL • 창립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사진으로 보는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90주년 축하메시지 • 90주년 맞이 Y가족이야기	편집실
5월	• 광주에서 서울로 이어진 YWCA 평화 • 전국회원대회 워크숍	편집실
6월	• 2012 YWCA 전국회원대회-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 들어다보기 • 제16회 YWCA 회원들이 직접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편집실
7+8월	• 미리 보는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 강릉YWCA 평화순례-시민과 함께 한 평화순례	편집실
9월	•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	편집실
10월	• 광주YWCA 90주년 기념행사 스케치 • 한국YWCA 100주년 행사를 함께 기다립니다	편집실
11월	• 2012 YWCA IT(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최윤영
12월	• 지나간 90년, 다가올 10년 - 서울YWCA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 한 눈에 보는 2012 YWCA	박서영 편집실

## ● Y정책 : 돌봄으로 정의를 세우다

1+2월	돌봄 노동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산	은수미
3월	사회적 돌봄교환	윤정향
4월	-	
5월	ILO 기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해	표대중
6월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과 시민단체의 대응	최영미
7+8월	YWCA 직업훈련의 역사	차경애
9월	YWCA 돌봄사회적기업 현황 분석	돌봄조직연구TF팀
10월	공동체성 강화와 공익 실현으로 실질적 거버넌스를	최윤미
11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한국YWCA	돌봄과살림팀
12월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이충권

## ● Y정책 : 돌봄으로 정의를 세우다

1+2월	한국YWCA 돌봄운동 위한 사업유형검토 간담회	김혜경
3월	돌봄관련 사회적기업의 나아갈 방향	이미영
4월	-	
5월	돌봄으로 임태하는 살림 현장	안산, 서울Y
6월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돌봄정의를 말한다	김성숙
7+8월	2012 YWCA 돌봄대상 수상자, 30년을 돌아보며	조희숙 외
9월	부천은 지금, 돌봄회원 조직 변화 모색 중!	송록희
10월	사회적 기업 ‘광주YWCA 드림헬퍼 사업단’, 유럽 벤치마킹을 가다!	박정순
11월	세계협동조합 현장에 가다!	배정미
12월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이충권

## ● YWCA와 사회

1+2월	청소년 폭력	양선희
3월	원전과 탈핵	최한미
4월	월간을 통해 본 Y가 주목한 사회	편집실
5월	YWCA 복지사업단의 10년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편집실
6월	• 창조질서 보전을 향한 발걸음 •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선 오진아
7+8월	‘성평등 국가’에 대한 비전	김은경
9월	‘강남 스타일’에서 배우는 한국YWCA의 문화 지향점	윤세민
10월	학교폭력, 평화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문경란
11월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올라	이영아

## ● 체임, Y현장

1+2월	청주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현주
3월	• CSW 새로운 여성 과제: 농촌여성들의 역할과 도전 •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조영미 편집실 전선녀
4월	-	
5월	성매매피해여성일자리지원시설 울산YWCA 씨밀레	김도희

6월	그들이 우리가 되는 이곳, 전북하나센터	김지영
7+8월	키다리 입학식 하는 날	고은희
9월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	김광식
10월	2012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정서연
11월	전 세계 YWCA 자매들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다	고은주
12월	• 다문화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문화교실 • 씨타-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김지혜 조은선

## ● Y가 만난 Y사람들

1+2월	광주Y 조규해 선생을 만나다	편집실
3월	조용하게 큰 세상을 만나게 한 운동가, RUTH HERN	박은실
4월	제10회 한국여성지도자 상 수상자	편집실
5월	행복마음을 만드는 마술사, 한종훈 사회복지사	편집실
6월	즐거움 소통, 행복한 메아리 YWCA 인터넷 방송국 3기 아나운서	편집실
7+8월	기부천사, 리치몬드 제과 명장 권상범	편집실
9월	부산YWCA 브라밴드	편집실
10월	‘사랑을 말하다’ 전화속 감독	편집실
11월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	편집실
12월	복음과 섬김의 양 날개를 펴고, 송기성 목사	편집실

## ● YWCA 생명이야기

9월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회를 위하여	이윤숙
10월	생명 순환의 하나님 섭리를 되찾아야 할 때	이윤숙
11월	탈핵의 길은 생명의 길	이윤숙
12월	후쿠시마에 주님의 평화를!	이윤숙

## ● 새로 시작하는 Y운동

5월	• 포스코와 함께하는 친친와이파이 존 • 카우자 Y다운 리더 학교	편집실
6월	• 2012 지구시민자원활동 프로젝트 도스뜨 •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편집실
7+8월	•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사례 수기 공모 • YWBS 4기 방송 시작 알림	편집실
10월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김찬빈

## ● 확대경

1+2월	회원YWCA 신입회장 소개	편집실
3월	-	
4월	고 문태임 선생님을 추모하며	차경애
5월	2012 YWCA 회원증포워크숍	편집실
6월	YWCA 활동가 하령희	편집실
9월	YWCA 90주년 영화 <사랑을 말하다>	편집실
10월	청년인터넷방송국 YWBS	주보경

## ● 월례아침기도회

1+2월	여자 여럿이 함께 섬기더라	장빈
3월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김명희
4월	십자가로 가까이	주선애
5월	창조세계의 보전과 핵 없는 세상	장윤재
6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장윤재
7+8월	감사의 영성	이천진
9월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장빈
10월	YWCA여, 이 시대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정지석
11월	나눔으로 평화를!	강교자

## ● 북한을 만나다

1+2월	2012년 북한동향	백영옥
3월	양심	현인애
4월	-	
5월	동아시아 정세와 북한문제	이기호
6월	민화협을 통한 북한 지원 이야기	안정희
7+8월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김은주
9월	남북 농업협력 및 지원활동과 안주지역 수해피해 상황	김필주
10월	당곡리협동농장 이야기	홍성영
1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역할	전연숙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한 대북지원운동과 2013년도 계획 및 제안	이창휘

## ● 평화시선

1+2월	음악, 그림, 글 그리고 평화	김소영
3월	영화 크로싱	한미미
4월	제1차 YWCA 평화포럼	평화나눔팀
5월	뮤지컬 언털 더 데이	김은주
6월	제2차 YWCA 평화포럼	평화나눔팀
7+8월	제3차 YWCA 평화포럼	평화나눔팀
9월	영화 코리아	하은경
10월	제4차 YWCA 평화포럼	평화나눔팀
11월	• 평화의 여정 : 다음을 통해 배우다 • 다큐멘터리 Women, War and Peace	최수신나 김지혜
12월	제5차 YWCA 평화포럼	평화나눔팀

## ● 성명서

3월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에 대한 한국YWCA입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학교폭력에 대한 YWCA 청소년의 다짐과 요구
6월	탈원전 국제교류 하토다테 액션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
7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8월	탈핵을 위한 한국YWCA 생명 평화 결의문
9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11월	가짜지구 여성과 어린이들의 보호와 평화를 위한 세계YWCA의 호소 팔레스타인 YWCA 즉각행동 요청: 가짜지구 침략을 중단하라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 월간『한국YWCA』 CMS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간『한국YWCA』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CMS신청 기간연장 문의 02)774-9702

강교자	김기동	김용자	방해자	백영옥	신홍근	이경순	이영균	이일선	이천진	정동신	지순경	최은식	한영수
강인순	김명희	김용자	방현주	성지희	신희운	이남복	이영순	이재경	임국이	정유진	차경애	최효숙	한진이
고영의	김신숙	김효선	배영자	송현숙	유기옥	이명혜	이영옥	이중경	장옥순	정진자	최미숙	축령복음병원(신희운)	
고익순	김완희	명진숙	백수경	신미옥	윤혜원	이수련	이은영	이중선	전희순	정희영	최영선	한미미	

## 출판감사인사

한국YWCA에 책을 보내주신 출판사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책은 <신간소개>란에 소개하고 있으며, YWCA활동가들의 지적양분이 되고있습니다.

가교출판 | 가나출판사(기린원) | 강같은 평화 | 개암나무 | 거인 | 경진 | 계간(아시아) | 게임 | 고래실 | 고래이야기 | 고슴도치 | 공공문화개발센터URART | 교문사 | 교보문고 | 교양인 | 굿인포메이션 | 그루북스 | 그르메 | 그린북(황금가지) | 글고은 | 글담출판사.인디고 | 글로세움 | 글썬산책 | 기획출판 거름 | 김&정 출판컨설팅 | 김영사 | 꿈이루는사람들 | 나눔의 집(함께읽는책) | 나무생각 | 나무숲 | 난장이 | 낮은산 | 내인생의 책 | 네모북스 | 넥서스 주니어 | 노란돼지 | 노마드북스 | 노바(성림, 지식더미) | 녹색평론 | 누보 | 눈과마음 | 뉴스앤조이 | 느린걸음 | 늘푸른 소나무 | 니 | 니키엔프렌 | 다다북스 | 다른세상 | 다른우리 | 다림 | 다만북스 | 다산북스 | 달리 | 달팽이출판 | 당대 | 대교베텔스만 | 대디북 | 대한기독교서회 | 더난출판 | 더북컴퍼니 | 더숲 | 도깨비 | 돌베개 | 동녘 | 동문선 | 동산사 | 동아시아 | 동연 | 동학사 | 두드림 | 두란노 | 두리미디어 | 들녘(느림보) | 디자인하우스 | 따님 | 따비 | 땅에쓰신글씨 | 또 하나의 문화 | 뜨인돌 | 뜨인돌어린이 | 라이온북스 | 라이프플러스인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 랜덤하우스코리아 | 로템(릭스미디어) | 루덴스 | 룩스미아 | 리더북스 | 리더스하우스 | 리베르 | 리수 | 리스컴(종이책) | 리얼북 | 리젠 | 마더북스 | 마음의숲 | 마인드북스 | 말글빛냄 | 메이데이 | 멘토press | 멘토르출판사(노란우산) | 멜론 | 모아북스 | 몬스터플래닛 | 문공사 | 문원 | 문학동네 | 문학동네 | 문학동네(달)(알마) | 문학세계사 | 문학에디션 풀 | 문학의 문학 | 문화미래 이프 | 물푸레 | 뮤직마운트 | 미디어미래연구소 | 미디어월 | 미래문화사 | 미래엔컬처그룹(아이세움) | 미래와경영 | 미래의창 | 미술문화 | 민들레 | 민음사 출판그룹 | 민음인(황금가지, 판미동) | 밀리언 하우스 | 바다출판사 | 바람의 아이들 | 바람출판사 | 바보새 | 바오밥 | 바우하우스 | 바움 | 바이북스 | 반디(백간교육) | 베스트프렌드 | 베이비북스 | 보보스(작은씨앗) | 붓날 | 부.키 | 부글 | 부표 | 북마크 | 북멘토 | 북북서 | 북센스 | 북스넷 | 북스토리 | 북코프 | 북클릭 | 북폴리오 | 북하우스 |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분도출판사 | 뷰스 | 브니엘 | 브라가서비스 | 브레인월드(한문화) | 블루미디어 | 바이북 | 비전과리더십 | 비전북 | 비즈니스북스 | 비즈앤비즈 | 비즈니스맵(한국물가정보회사) | 비체 | 비타브레인 | 뿌리깊은나무 | 사이버외교사절단 | 반크 | 사파리 | 사피엔스21 | 산눈출판사 | 산책자 | 산하 | 살림 | 살림터 | 삼성출판사 | 삼인 | 삼천리 | 상수리나무 출판사(맥스미디어) | 새만화책 | 생각과느낌 | 생각비행 | 생각의나무 | 생각창고 | 산티 | 서광사 | 서돌 | 서해문집 | 섬생북 | 섬아이 | 성안당(새앙뿔) | 성하출판 | 세계사작가세계 | 세마치 | 세용출판 | 세종서적 | 세창출판사 | 소금나무 | 소나무 | 소소리 | 소와당 | 소울메이트(원앤원북스) | 소피아 | 슬라피데출판사 | 슬로문북 | 슬출판사 | 순정아이북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토리하우스 | 승산 | 시공사 | 시공주니어 | 시금치 | 시금치 | 시냇가에 심은나무 | 시대의 창 | 신 진리탐구 | 실천문학 | 쌤 앤 파커스 | 씨네21 |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씽크뱅크 | 씽크스마트 | 아교라 | 아라크네 | 아롬미디어 | 아르고스 | 아르케 | 아롬다문화 | 아모르문디 | 아우라 | 아이네오 | 아이웰콘텐츠 | 아이프렌드 | 이지북스 | 아침기획 | 아침이슬 | 아카넷 | 아트하우스 | 애니북스 | 애플미디어 | 애플북스 | 애플비 | 야스미디어 | 양철북 | 어드북스 | 어린론이 | 어린론이 | 어린이책 이야기 | 어바웃어북 | 언어세상 | 에듀웰 | 에버리치출판 | 에이지21 | 예코리브르 | 예코의 서재 | 엘빅미디어 | 여름숲 | 여백미디어(꼬마섬티) | 여성중앙 | 여우별 | 여우오줌 | 여우와두루미 | 여유당 | 여이연 | 역사비평사 | 열대림 | 열린책들 | 열림원 | 열음사 | 영교출판 바우술 | 예담 | 예림당 | 예문 | 오토북스 | 오피니티 | 울 | 울리브나무 | 웅기장이 | 와우북스(와우라이프) | 와이미디어 | 와이즈아이 | 운주사 | 웅진출판(시작) | 원민출판사 | 월간 가이드포스트 | 월간 싱글레어 | 웰북 | 웰스프링 | 위즈엄하우스 | 유림문화사 | 은행나무 | 이너북 | 이레미디어(담푸스) | 이마고 | 이미지박스 | 이상미디어 | 이숲 | 이아소 | 이유 | 이지북(자음과모음) | 이지출판 | 인물과사상 | 일송미디어 | 일송북 | 일월서각(북비, 황금고래) | 일출봉 | 자유로운 상상 | 작은나무가주는 희망 | 작은책 | 작은책방 | 장서가 | 장수하늘소 | 재미마주 | 전나무숲 | 정은문고 | 제우스 | 젠북 | 조이웍스 | 종합출판 | 좋은교사 | 좋은책만들기 | (주)가나출판사(기린원) | (주)가이드스 | 주간코믹 팬티 | (주)기탄교육 | (주)길벗어린이 | (주)길벗어린이 | (주)더큰컴퍼니 | (주)도서출판 길벗 | (주)도서출판 보리 | (주)도서출판 삼인 | (주)드레스 경영연구소 | (주)매경출판 | (주)명진출판 | (주)문화과지성사 | (주)미래M&B | (주)베이스캠프 | (주)북21 | (주)올파스 | (주)불지사 | 동쪽나라 | (주)브레인 | (주)비전비엔피(이민슬리벨) | (주)비전엔피.비전코리아 | (주)비전하우스 | (주)세계출판사 | (주)서울문화사 | (주)서원 | (주)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 (주)스타북스 | (주)신원문화사 | (주)안그라픽스 | "주에스오커뮤니케이션 | (책그릇, 어부의 그물)" | (주)영어정복자 | (주)중앙출판사 | (주)창비 | (주)크레듀 | (주)타라피에스 안티쿠스 | (주)파라북스 | (주)한겨레출판 | (주)한글교육 | (주)한조미디어 | 중앙books | 지상사 | 지식노마드 | 지식여행 | 지식의 샘 | 지양어린이(키드북) | 지혜의 눈 | 지훈출판사 | 진명출판사 | 참관경제연구소 | 창작마루 | 걸 | 채우리 | 책과함께 | 책보세 | 책씨 | 천권의 책 | 천동거인 | 청개구리 | 청년사 | 청년의사 | 청림출판(추수밭) | 청솔 | 청아출판사 | 청어람 | 청어람주니어 | 청포도 | 초록개구리 | 추수밭 | 쿠오레 | 쿠포북 | 쿨란출판사 | 큰나무 | 클리어마인드 | 타교북스 | 토네이도 | 통나무출판사 | 파란자전거 | 파란하늘 | 파란하늘 | 파랑새 | 파피에 | 판테온하우스 | 팜파스 | 퍼플레인 | 페이퍼로드 | 평단문화사 | 평사리 | 평화나무 | 포이애마 | 풀라리스 | 풀라북스 | 푸른길 | 푸른나무 | 푸른숲 | 푸른역사 | 풀빛 | 프렌즈 | 프리월 | 플래닛 미디어 | 플러스에감 | 하늘고래 | 하늘아래 | 학교재 | 학교재 | 학민사 | 한국경제신문 | 한경BP | 한국문화사 | 맵스터 | 한솔수북 | 한스컨텐츠 | 한울림 | 해냄출판사 | 해누리 | 해솔 | 해와나무 | 행복우물 | 행복한 나무 | 행복한 책임기 | 헤라 | 현대문학 | 현문미디어(생각하는백성) | 현암사 | 호미 | 호이테북스 | 흥림 | 흥성사 | 흥시 | 흥진P&M | 환경과생명 | 환타릭스 | 황금물고기 | 황금부엉이 | 황소걸음 | 후마니타스 | 휴머니스트 | 흐름출판 | CUP | Notebook | AATNB | BOOK 21 | E\*PUBLIC | for book | good Book | ISL출판사(슬라피데) | JNC커뮤니티 | MBC프로덕션 | media 20

# 성공하라, 콘텐츠의 힘으로!!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사람들은 나에게 사이버대학도 이름을 보고 가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이버대학교라면 이름은 물론 그 안의 콘텐츠도 강해야 한다는 것을!

사이버대학교라면 콘텐츠가 강해야 한다  
**숭실사이버대학교**